

제 12 회 중 앙 아 시 아 성 균 한 글 백 일 장

접수번호: 2021-CAS0621 한글 성명: 샤무라토바 딜노자

한글 성명: 사무라토바 딜노자

[illegible]

제 12 회 중 앙 아 시 아 성 균 한 글 백 일 장

접수번호: 2021 - CAS 0621

한글 성명: 샤무라 토바 딜노자

것이	원	래		그	런	가	?		처	음	에		몰	랐	던		사	이	였	던		
		타	인	과		여	연		인	면	으	로		내	가		원	하	지	알		
		아	도		반	복	적	으	로		만	나	게		되	었	으	며		내	가	
		그		사	람	과		인	연	이		몇	었	던		것	을		개	아	른	
		후	에		마	우	리		찾	아	도		찾	을		수		어	게		된	
		다	,	그	런	데		인	연	이	라	는	게		어	떻	게		해	든		
		다	시		만	나	게		된	다	고		한	다	,	나	도		인	연	이	
		면		꼭		만	날		수		있	다	는		것	을		자	기	가		
		사	은	연	서		그	런		일	이		있	었	던		것	이	다	알	게	
		되	었	다	.																	
		20	17	년		8	월		말	에		한	국	어		공	부	를		알		
		심	히		하	고		있	는		우	리	를		선	생	님	의		한	국	
		'K	O	V	A'		라	는		봉	사	활	동		의	사		선	생	님	들	
		에	게		주	천	을		하	시	고		봉	사		활	동	을		하	게	
		되	었	다	.		한	국	인	들	과		처	음	으	로		일	은		카	이
		하	는		것	이	화	서		너	우		긴	장	했	고		못		할	자	
		보		떨	렸	다	.		의	사		선	생	님	들	의		너	우		멋	있
		었	다	.		떨	리	고		있	는		나	를		보	고		한		미	인
		이	신		언	너	가		다	가		오	셨	으	며		나	에	게		먼	
		리		말		걸	으	셨	다	.		당	황	한		나	에	게		한	국	어

제 12 회 중 앙 아 시 아 성 균 한 글 백 일 장

집수번호: 2021 - CAS 0621

한글 성명: 사 무 라 토 바 달 노 자

할	중	아	니	?	'	라	며	네	,	조	금	잘	해
모	라	고	대	답	했	다	.	나	는	너	무	떨	려
신	생	님	저	만	약	에		통	억	을	잘	못	하
어	떨	게	로	?	'	했	디	니	의	사	선	생	님
이	면	서		다	관	관	을	꺼	야	걱	정	마	'
의	를		일	을	시	각	했	다	.	한	국	인	들
으	를		가	이	일	을	하	는		것	이	라	와
에		집	중	을	하	면	서	열	심	히	했	다	.
하	면	서		봉	사	활	동	을	한	나	를	동	안
그		친	절	하	신		한	국	인	의	사	선	생
일	을		하	면	서		의	사	선	생	님	언	니
처	음		만	났	을	대	의		'	못	하	면	
라	는		말	을	기	억	하	니	?	라	고	너	는
어		너	무		잘	해	,	어	디	가	든	이	제
감		있	게		다	네	라		하	고	응	원	해
일	이		प्	나	가		하	신		말	을	든	고
동	적		이	었	다	.	나	를		지	나	선	생
한	국		으	로		돌	아		가	실		준	비
와		가	이		봉	사	활	동	에		도	움	중
향		친	구	들	이		가	이		파	트	니	로

제 12 회 중 앙 아 시 아 성 균 한 글 백 일 장

접수번호: 2021-CAS 0621

한글 성명: 사 무 라 토 바 일 노 자

선 생 님 들 과 연 락 처 를 받 고 같 이 일 하 는
 중 에 기 념 사 진 찍 었 다 고 한 다 . 나 만
 배 배 고 다 한 국 인 선 생 팀 들 잘 잔 했 다 고
 한 다 . 북 끄 러 움 이 많 고 자 신 감 도 없 었
 던 나 한 일 에 만 집 중 을 하 다 보 니 같
 이 파 트 너 토크 한 언 니 의 성 함 밖 에 몰
 랐 던 것 이 마 음 이 왜 지 미 상 했 다 . 그 것
 은 내 즉 변 친 구 들 이 자 기 선 생 님 들 과
 많 이 지 내 고 연 락 처 도 발 은 것 이 아 니
 라 처 음 에 자 기 한 국 어 실 력 에 못 민
 고 자 신 감 이 많 이 없 는 나 에 게 의 사 님
 언 니 의 ' 너 는 한 국 어 너 무 잘 해 , 어 디
 가 든 자 신 왔 게 다 네 라 ! ' 너 와 어 려 움
 없 이 모 든 환 자 들 을 잘 검 사 했 고 의 사
 소 통 할 때 막 힘 없 이 환 자 들 의 아 드름 을
 진 달 해 즉 여 많 은 사 람 들 에 게 도 움 을
 주 었 다 고 했 던 말 씀 에 내 가 너 무 감 동
 받 아 서 아 무 말 도 못 해 나 가 버 린 상
 황 이 있 어 그 때 답 을 못 해 미 안 한
 마 음 을 연 락 처 못 발 은 나 후 회 했 다 .

제 12 회 중 앙 아 시 아 성균 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1 - CAS 06 21

한글 성명: 사무라토바 딜노자

엔	락	러	받	았	으	면	뒤	늦	게	이	라	도	감	사
하	는	마	음	을	전	할	수	있	을	때	데	라	는	
마	음	으	로	한	1	년	마	음	에	걸	리	면	서	살
았	다.	그	러	던	이	느	날	한	누	쿠	스	시	장	
에	서	몇	몇	명	모	여	서	한	국	인	들	의	장	
보	는	것	을	보	게	된	다.	왜	지	1	년	전	에	
같	이	일	했	던	언	니	가	떠	올	랐	다.	언	니	가?
하	는	마	음	으	로	한	국	인	들	을	찾	으	로	갈
마	가	있	었	던	장	소	에	서	살	아	지	게	된	다.
한	시	장	에	서	몇	번	온	시	장	을	들	아	니	게
된	다.	물	찾	아	을	적	하	면	서	물	마	시	러	
한	가	계	에	들	러	간	다.	가	계	온	을	여	니	
온	시	장	뒤	집	혀	찾	으	로	했	던	언	니	가	
있	단	다.	언	니	를	보	고	모	든	지	냈	던	일	들
을	애	기	해	준	다.	언	니	에	게	감	사	하	여	마
음	이	포	견	해	줬	다.								
인	연	이	란	말	을	나	는	자	기	언	니	와	맥	
었	다	고	해	도	과	연	이	아	니	다.	인	연	이	란
어	떻	게	해	든	은	명	려	림	다	시.	만	나	게	
된	다.													